당신의 수행력(법력)은?

불 · 법 · 승 정법 실천도량
연등사(선재불교대학) 도안 합장
경남 거제시 연초면 천곡1길 62 (충해공원 내)
☎ 055)633-6555



요즘 뉴스를 보면 조현병 환우들이 저지른 끔찍한 살인을 비롯한 대형사건 사고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쉬쉬하며 그들은 정신병동으로 내 몰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문제로 우리사회가 불안해하고 있다.

그들이 시도 때도 없이 엄청난 대형 사고를 치고 있으니…

여기서 다시 한 번 묻습니다.

당신은 길에서 환우(조현병, 전이된 암환자, 희귀병)를 만나면 어떡하고 있는지… 성직자의 신분이라면 여기에 대해 얘기해야 할 것이다.

오래전에 유명하신 큰 선승께서 법문 시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불자라면 기억할 것이다.

어느 성자께서는 길을 가다 정신을 잃어버린 환자(조현병)와 육체의 병을 앓는 이(요즈음 각종 암, 희귀병)를 만나면 그는 단번에 이마에 손을 대어 마귀를 쫓았고, 육체 병을 앓는 이는 아픈 곳에 손을 대어 그를 낫게 해주었는데, 나는 일찍이 출가하여 여태껏 수행정진을 했으나 법력이 없어 그런 환우를 만났으나 한 번도 살려내지 못했노라고 대중 앞에서 참회하셨다.

어디 그 분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실제 그러한 환우들이 절에 오면 천도재나 구병시식을 시도 때도 없이 하고 있다. 그것도 몇 번이고 해야 한다며 돈만 챙기고 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른 수행을 통한 법력이 없는데 그러한 푸닥거리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제발 우리 스스로 참회하고 참회할 일이다.

부처님도 과거 생으로 부터 오랜 겁을 두고 닦고 닦았기에 우리가 가질 수 없었던 그러한 권능(법력)을 가질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번 생을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에도 닦고 닦아야 언젠가는 그러한 법력이 생길 것이다.

훗날이라도 기약하려면 지금 당장 술, 담배부터 끊고 절집에서 하고 있는 사행행위에 불과한 것(사주, 철학, 삼재, 부적, 입시기도, 고기방생, 성지순례, 인등, 스님생일, 운기도, 제수기도, 각종 합격기도, 기타 등등…)을 단번에 끊고 시중에 차고도 넘칠 만큼 많은 우리의 지도서인 경전과 조사어록이 널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처님과 조사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자신들이나 그러한 처소에서 거처하며 묵인하는 우리 모두는 부끄럽지도 아니한 가.

더군다나 법문하고 불교대학까지 운영하면서…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잘못된 버릇을 고치기 위해 법문내용을 좀 달리하자. 그러니 그 어디에도 법력이 없을 수밖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스님이 공영방송에서 질문자가 "조현병 환자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라고 묻자 정신병원에 보내야 한다고 했고, 또 하나는 큰 행사인 세계○○대회를 할 때 똑 같은 질문이 나오자 역시 거기서도 정신병원에 보내어 참회와 약물치료를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은 신통으로 여기에서 저기를 찰나에 이동할 수 있다고… 또 나를 찾아왔던 명상단체 대표는 공중부양을 한다나… 그래서 여기 신도분이 그럼 공중부양을 해보이라고 하니 분위기에 따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나… 불자들이여 그러한 신비를 조장한 얘기를 하면 즉석에서 보여라고 당당히 얘기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불교는 그렇게 대충 어영부영 넘어가는 사이비 종교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입은 굳게 다물고 실천을 통해 체득한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얘기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모든 경에서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 •

〈사례 ❶〉 – 담도 암, 담낭 암

2018년 초 봄에 20여 년 전 서울 큰절에 있을 때 알았던 보살님이 전화가 왔다.

스님 별고 없으시냐고 묻고는 하시는 얘기가 얼마 전 서울 연세0000병원에서 담도, 담낭암 3기이며, 이미 전체에 전이가 됐다는 것이며 수술은 약7일후 예약이 잡혀있다고 했다.

그래서 바로 인터넷을 보니 암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암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수술할 수 있는 이는 초기 암인데 그 중에서도 20% 미만인데다 생존율은 10% 미만이라는 것이다.

더군다나 3기에다 72세 고령인데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어쨌든 형제, 가족들의 성화에 못 이겨 수술을 하기는 하는데 개복과 동시 손도 못 써보고 사망할 수도 있다고 의사가 얘기한 것을 형제들이 녹음을 떠서 이 스님한테 보내왔다.

백혈병등 많은 환자들을 기도해 왔으나 의사 말을 듣고 긴장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래서 미룰 상황이 아니라서 열 일 제치고 바로 기도준비 해서 여기 스님들과 서울로 향했다.

형제분들을 전부 환자 댁으로 오게 하여 그 집에서 저녁공양 후 환자 방으로 가서 스님들과 형제분들이 다 같이 둘러 앉아 기도를 했다.

근데 배에 손을 대니 무엇인가 손에 잡히길래 묻자 병원에서 장기끼리 협착이 되면 안된다고 구조물을 넣어서 분리시켜 놓았다는 것이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다음날 새벽에 또 기도를 하고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기적이 꼭 일어날 것이라고 하고 나왔다.

그리고 수술 날 환자의 배를 개복해보니 전이되었던 암이 어디로 사라지고 없고, 간에 조금 붙어 있는 것만 아주 조금 떼어 냈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3일 뒤 의사가 하는 말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예외라고 하면서 항암등 방사선 치료를 전혀 받을 필요도 없고 약도 안 먹어도 된다"며 3일 만에 바로 퇴원 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초파일이 되어 보살이 초파일 하루 전날 연등사 스님에게 꼭 공양대접을 해야 한다며 음식점에 갔는데 그 곳에서 보살생일을 공포하는 것이다.

이미 부모로부터 이어온 연은 다했고 스님기도 덕에 새 생명을 얻었으니 내년부터 내 생일은 새 생명을 얻은 날 생일잔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참고로 이 분은 1년에 3~4회 정도 온다.

• • •

〈사례 ❷〉 – 조현병

50대 중반에 접어든 스님이 전화예약 후 찾아 왔다.

인사말을 하는데 발음도 시원찮고 버벅대는 것이다.

어디가 제일 아프냐고 묻자, 몸 아픈 것은 둘째 치고 염불을 못하겠다는 것이다. 그럼 언제부터 몸이 아팠고 말을 더듬었냐고 하자, 처음에는 몸이 조금씩 아프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픈 강도가 심했고, 급기야 말까지 더듬게 됐다고 한다.

그럼 여기 온 목적이 무엇이냐고 하니, 몸보다 염불이라도 할 수 있도록 기도 받고 싶다고 했다.

도대체 지난세월 어떻게 수행했길래 병명도 없는 이런 현상이 왔느냐고 또 묻자… 별 말이 없다.

다시 물을테니 진솔하게 대답해 주기 바란다하고는…

불보살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삿된 것들 사주, 철학, 부적, 삼재, 각종기도(합격, 재수, 운, 용왕, 산신), 고기방생, 성지순례, 인등 등을 했느냐고 묻자, 그런 것 안하는 절이 있냐고 되레 묻는다.

연등사는 그런 것 하지 않는다. 어느 경에 어느 조사어록에 그런 것 하라고 하드냐고 하자…

또 49재, 천도재를 지내냐고 물으니… 또 가만히 있는다.

수행력으로 다져진 법력이 있어야 그 힘으로 영가를 움직일 것이 아닌가요? 이미 그림자가 들어와 있는데.

얼마전 49재 들어와 있다고 하길래, 당장 그 유족들을 불러 재 비를 돌려주고 이 돈을 불우이웃 돕기나 장애인 단체, 요양원, 복지관, 소외된 계층에 망자의 이름으로 기부하라 했다.

그러면 그 영가는 천국 또는 아미타부처님이 계신 극락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기도를 받고 싶으면 필히 참회하고, 본 사찰은 비 불교적인 행위(사주, 삼재등 이미 나열한 것)를 사절 한다는 프랜카드를 절 입구에 걸고 인증샷을 찍어 연등사로 보내면 그때 직접 가서 확인하고 기도를 해주겠다고 하며 일주일 시간을 주어 기다렸으나 연락이 없었다.

• • •

절 집안에서 신통, 방통 영험한 뜬소문만 무성하게 하지 말고 당당하게 바른 수행을 제대로 했다면, 그 법력으로 많은 이들을 살려서 그들을 바른 정법불자로 이끌어야 할 것이다.

얼마 전 "사자"란 영화를 보았는데, 종교를 가진 이라면 이 영화를 꼭 시청함이 좋을 듯하다.

제일 인상 깊었던 내용은 바른 믿음으로 수행하면 성경에서도 손에 두 가지 권능을 주는데, 첫째는 마귀를 쫓는 힘을 주며 두 번째는 아픈 이를 낫게 하는 힘을 준다.

이러한 내용은 경전과 조사어록에서도 쉽게 나오는 얘기다.

최상의 공덕과 복덕은 수행력으로 환우(조현병, 전이된 암, 희귀병)를 낫게 하는 일이고, 그 것에 미치지 못할 시는 그들을 돌보는 일이라고…

달라이라마 존자께서도 어느 해 초파일 법문에서 수행자로서 최상의 덕과 복은

첫째 출가하여 수행정진 끝에 얻은 수행력(법력)으로 아픈 이를 치유하는 일이며,

둘째 수행력이 부족할 시는 아픈 이를 돌보는 일이며,

셋째 수행력이 아예 미치지 못할 시는 오로지 바르게 공부한 것을 바른 실천을 통해 정법을 세상에 알리는 일이라고 하셨다.

이것 모두가 실천행이다.

수행자는 실천행 없이 앉아서 입으로 앵무새처럼 떠드는 것이 아니다.

앉아서 떠드는 것은 출가수행자가 할 일이 아니고 우리 사회 각 전문가들 심리상담 등 명상, 요가, 음악 기타 전문가들이 차고 넘친다.

그것은 그들의 영역이니 그들에게 맡기고 수행자는 수행 끝에 얻은 수행력(법력)으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곳에 나투어야 할 것이다. 고 이태석 신부님처럼…

자 이쯤에서 또 다시 각 방송매체에 제안합니다. 오래전에 이 지면을 통해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제안 합니다.

예전에 JTBC 방송에서 이영돈 PD가 "십대 점술가를 찾아서"라는 프로를 방영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처럼 사주, 철학, 점 보는 무당프로는 고사하고 종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구원, 기적, 가피를 체험할 수 있게 소문만 무성한 종교인과 방송스타급 성직자를 출현시켜 그 수행력(법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장을 펼쳐봄이…

여기에 조현병, 전이된 암환자, 희귀병 등의 환우를 공개된 공간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그대로 시청자들이 보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다시 한 번 청원합니다.

연등사(선재불교대학) | **도 안 합장**

즉문즉설 안내

내 용
조현병, 말기암, 희귀병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은 이들을 통한 발표 및 질의응답

일 시
2019년 9월 22일 오전 10시

장 소
연등사 대웅전

참가자격
누구나

기타사항
· 당일 개인면담은 안 되고, 참가자에 한해 일정통보
· 앞으로는 재정이 해결되면 스님들 조현병 및 각종 암 치유 사례를 쓰고자 함

일부 신도님 연락처
· 010-4807-6932 [박○○]
· 010-3143-5302 [무 현]
· 010-9707-4808 [박○○]
· 010-8291-9423 [변○○]
· 010-5699-3173 [박○○]

